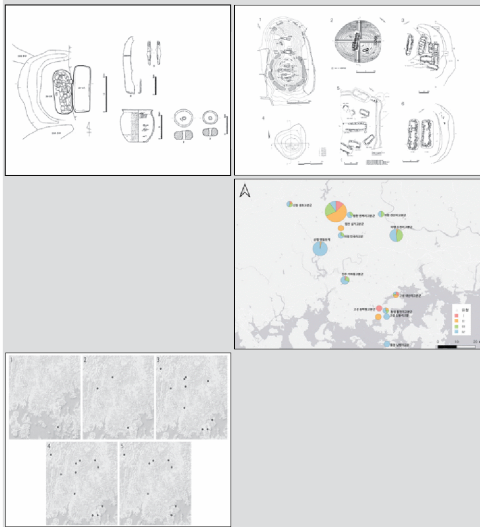




소가야 다곽식 고분의 전개와 특징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Sogaya Multi-Chamber Tombs

류 승 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 I. 머리말
- II. 묘곽 유형과 피장자의 정체성
- III. 다곽식 고분의 유형과 매장 의례
- IV. 소가야 다곽식 고분군의 전개 양상
- V. 맺음말

국문 요약

그간 소가야 다곽식 고분의 연구는 배치를 통한 형식 분류와 변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 왔다. 분류와 변천의 해명에 중점을 둔 그간의 연구는 같은 묘역에 배치된 묘곽의 피장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 없었다. 함께 묻힌 피장자의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다곽식 고분을 막연히 가족묘 혹은 근친묘로 생각해 왔다. 다곽식 고분은 여러 묘곽이 모여 하나의 묘역을 공유하고 있다. 다곽식 고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묘곽을 분류하고 이러한 묘곽이 어떤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피장자의 정체성이 반영된 묘곽 분류를 통해 다곽식 고분의 피장자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분류와 유형화를 시도해 보고자 했다. 남부가야 사회에는 하나의 봉분 안에 여러 기의 묘곽이 배치된 다곽식 고분이라는 동일한 매장 의례가 확산되어 있었다. 제 지역 집단의 고분군들은 다곽식이라는 하나의 매장 관념에 따라 조영되었지만 서로 성격이 다른 피장자의 조합을 보여주는 다곽식 고분이 축조되어 각 조성 집단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주제어 : 소가야, 다곽식 고분, 묘제, 매장 의례, 정체성, 성별

I . 머리말

다곽식 고분은 하나의 묘역 내에 여러 기의 매장시설이 함께 축조된 무덤을 말한다. 다곽식 고분의 연구는 신라 적석목곽분을 외곽 무덤과 다곽 무덤으로 구분하고 다곽 무덤을 가족 또는 부부 무덤으로 분류한 것으로 시작되었다(박진욱 1964). 이후 가야의 다곽식 고분의 축조형식을 한 봉토분에 2기 이상의 묘곽이 있는 다곽식과 1기의 묘곽이 있는 단곽식으로 구분했다. 다곽식에는 주곽과 부곽이 있는 것과 3기 이상의 묘곽이 있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다곽식 고분의 존재를 다시 한번 부각하였다(윤세영 1974). 이처럼 초기 다곽식 고분의 논의들은 신라와 가야를 함께 논의하며 다곽식 고분의 성격을 이해하려 하기 보다는 다곽식에서 단곽식으로 변화하였을 것이라는 편년적 해석을 내놓았다.

이후 다곽식 고분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다만 가축묘의 전환과정에서 낙동강을 경계로 서부지역은 비교적 큰 매장주체부를 축조로 해서 보다 소형의 매장주체부가 원형의 묘역에 둘러지며, 동부지역은 대등한 규모의 매장주체부 2기가 나란히 11자형으로 배치되는 특징을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이성주 1996), 다곽식 고분에 배치된 묘곽 사이의 관계에 처음 관심을 보인 연구로 평가된다.

사실 합천 삼가고분군이 발굴되고 그 성과가 보고되면서 이 고분군을 중심으로 연구가 다곽식 고분의 연구가 본격화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후 합천 삼가고분군의 다곽식 특징을 분석하여, 가야권역 다곽식 고분과 비교하는 연구가 여럿 발표되었다. 가야 지역의 고분군의 다곽분을 주변 석곽의 면적 차이, 매장주체부의 축조순서, 평면배치 형태를 기준으로 고령식, 고성식, 삼가식이라 칭한 연구(최영준 2017: 34~45), 5~6세기 소가야연맹체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며 소가야권역의 다곽식 석곽묘 ‘다곽식 석곽묘1’, ‘다곽식 석곽묘2’로 분류한 연구(여창현 2017: 134), 소가야권 고분의 축조공정을 통한 유형 설정을 바탕으로 축조공정별 축조기법과 매장의례에 대한 분석(정인태 2020: 64~79), 매장시설의 배치와 조성방식, 봉분의 증축과 묘역의 확장 등을 통해 다곽식 고분의 분포와 지역성에 대해 검토한 연구(하승철 2021: 241~243), 묘역, 봉분, 매장주체부 등의 속성 분석을 통해 삼가식 고분을 ‘봉토중첩 확장형 구조’로 정의하였던 연구(안기동 2023: 138)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다곽식 고분의 연구에서는 매장시설의 구조와 배치 형태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고분의 편년과 분포권역의 설정 그리고 계통 및 위계 등에 대하여 논의해 왔다. 그동안 다곽식 묘제에 관한 여러 논의를 통해 특히 소가야계통의 고분에 관한 이해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의 일체적 구조로서 소가야의 다곽식 고분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되지 못한 의문이 많다고 생각된다. 즉 하나의 묘역 안에 배치된 피장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들은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들이었을까? 부장양상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무덤들로 구성된 고분군의 조영 집단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그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가?

여러 기의 매장시설이 일정 시기에 걸쳐 하나의 묘역 안에 배치된 다곽식 고분에 관한 의문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정체성을 달리하는 여러 피장자가 한 무덤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일회적인 축조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의 의례적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다곽식 고분의 성격은 하나의 무덤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여러 피장자의 조합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다곽식 고분의 분석에서는 묘곽의 평면적 배치 양상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층서적 관계의 파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이 반영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속성들을 통해 각 묘곽을 분류하고, 하나의 묘역 안에 분포하는 묘곽의 조합과 배치관계를 분석하여 다곽식 고분에 접근하고자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다곽식 고분이 다수 확인되는 소가야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가야의 다곽식 고분은 합천, 의령, 산청, 고성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이 외에 거창, 순천, 함양, 통영, 진주에서도 다곽식 고분이 확인된다. 이 연구에서는 소가야 양식 토기가 출토되는 고분군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양식의 부장이 중단되고 대가야 혹은 신라 양식 토기가 대체 출토되더라도 소가야적 의례가 지속된다면 연구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대상지는 합천 삼가고분군, 합천 안계리 고분군, 합천 소오리고분군, 의령 오천리고분군, 의령 경산리고분군, 의령 천곡리고분군, 고성 내산리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 고성 울대리2호분, 고성 신용리고분군, 산청 명동유적, 산청 생초고분군, 진주 가좌동고분군, 통영 남평리고분군, 통영 팔천곡고분군으로 총 15개소이다.

Ⅱ. 묘곽 유형과 피장자의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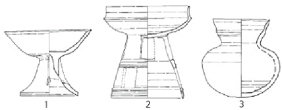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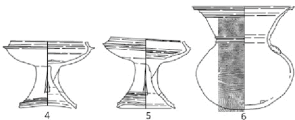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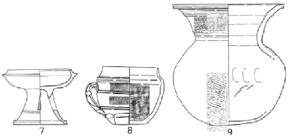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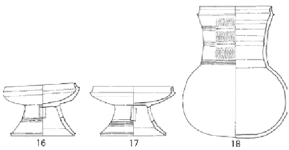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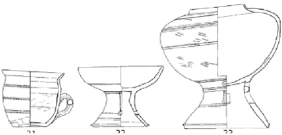
1. 편년

개별 묘곽의 연대를 설정하기 위해 고분에 부장되는 토기형식을 바탕으로 단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고성, 합천, 산청, 진주, 의령, 통영으로 소가야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편년 기준은 소가야 토기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일부 부장된 대가야와 아라가야의 토기도 참고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소가야 지역의 토기는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표 1)에 따르면 중촌 3호 동석곽 →

[표 1] 기존 소가야 토기 편년

연대	박승규(2000·2010)	하승철(2001·2015)	김규운(2009)	여창현(2013)	김지연(2013)
5C 1/4		중촌 3南 목곽 옥산 35·41·43	옥산 70 우수 18 무촌 2邱 52		
5C 2/4	우수 18 중촌 3南 목곽 옥산 38, 43, 60 중촌, 서동채집	우수 17·18 무촌 2구 60 옥산 29·63·80·189 중촌 3北·3西 목곽	무촌 2邱 60·29·85·16·14 무촌 3邱 129 옥산 21·40·80	현동(東西) 9·41·63 현동(島) 48 오곡 10	중촌 3南 목곽 현동 48 옥산 41 우수 18 중촌 3北 목곽묘 현동 56
5C 3/4	우수 12·16 연당 14 중촌 3東 석곽 현동 54 예둔 1, 25, 54, 57 고이 나-3, 10, 12	우수 11·12·16 무촌 2구 10·55·85 무촌 3구 147 현동 64 삼가 3·6·10 석곽 중촌 3東 석곽	월산 M1-A 중촌 3東 석곽 우수 16 무촌 2邱 25·51·55·80·82 무촌 3邱 83·145·147·170 명동 2지구 7·10·1·12·13	현동(東西) 8·130 대평 2-3 무촌 2邱 60·29·36·85·76·51 남평 10 우수 18 옥산 21·40 도항 19	무촌 2邱 10·11·14·16·29·36 ·55·60·85·96 무촌 3邱 129·147 창촌 A-158, 우수 16 도항 428-1번지 19 무촌 2邱 25·51·90 중촌 3東 석곽 평촌 167 오곡 152
5C 4/4	우수 14 예둔 27 가좌 1 고이 나-17 배만골채집	우수 14 삼가 9·14·15·20 중촌 21東 석곽 고성 내산 3곽 무촌 2邱 80 무촌 3邱 145 송학 1A-1호분 거제 장목고분	예둔 1·54 연당 14 무촌 3邱 82 가좌 1	무촌 3邱 129·147·145·55·80 ·82·83·54 무촌 2邱 55·80 대평 2·56, 남평 1 도항 17, 우수 16 현동(東西) 6 연당 14, 예둔 154 내산 3 명동 116, 112	무촌 3邱 133·145 합성 10·60 오곡 119·34·88 남평 1 명동 116, 115 평촌 148 도항 428-1번지 15
6C 1/4	가좌 2 연당 23 천곡 10-1 내산 8	명동 125-1·134 명동 178-3 삼가 M6-1 연당 23 가좌 1·2 송학 1B-1 사천 선진리고분	명동 169-1·78-2·99-1 명동 112 내산 34 연당 23 율대 2 가좌 2 우복 4	우복 4, 연당 23·18 명동 159·18·88-1·17·34 가좌 2, 예수 2 천곡 10-1·43·39-1·32 내산 34·8 송학 1A-11 신용 14-4	무촌 2邱 63 무촌 3邱 54·55·80·81 명동 117·31·41 명동 113·37·38 평촌 157 천곡 32 가좌 1
6C 2/4	가좌 4 연당 18 내산 34 천곡 35-2, 3 운곡 2	천곡 3·35-2·43 가좌 4 연당 18 내산 34 옥봉 7 운곡 2	천곡 3·32·39-1 명동 174	명동 17-1·78-33·20-1·74 명동 121 가좌 1·4 신용 116 내산 64·21-1·8-3	우복 4 무촌 3구 37 가좌 2 송학 1A-7·11 내산 21-1·15·34주·63-2 천곡 2·35-2·43

	소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도면 1] 연구대상지 편년

1·2·3: 통영 남평리10, 4·5·6: 삼가 I 지구 25, 7·8: 삼가 II 지구 M8-1, 9: 명동 I 25-1, 10·11: 천곡35-2,
13·14: 삼가3-A, 15: 삼가9-F, 16:10-1, 17·18: 오천 24-1, 19·20: 오천8-1, 21: 오천12-2, 22: 오천35-1, 23: 오천6-1

가좌 1호 → 내산 34호 · 천곡 8호 등의 순서로 이어진 상대편년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소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중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실연대의 부여에 관해서는 연구자들에 따라 견해 차이가 나타난다. 하승철은 소가야 토기와 스에키의 공반관계와 주변지역 토기와의 교차편년을 통해 소가야 토기를 I a단계 5세기 1/4분기, I b단계 5세기 2/4분기, II 단계는 5세기 3/4분기, III 단계는 5세기 4/4분기, IV 단계는 6세기 1/4분기, V 단계는 6세기 2/4~3/4분기로 설정했다. 하승철의 편년안을 따르되, 본고에서는 25년 단위로 시간성을 부여하기 위해 6세기 2/4분기와 6세기 3/4분기도 세분하여 단계를 부여했다.

본고에서는 5세기 3/4분기부터 6세기 3/4분기까지 총 5단계로 나누고자 한다. 1 단계를 5세기 3/4분기, 2단계를 5세기 4/4분기, 3단계를 6세기 1/4분기, 4단계를 6세기 2/4분기, 5단계를 6세기 3/4분기로 하여 25년 단위로 시간성을 부여하였다.

2. 묘곽 유형과 피장자의 정체성

다곽식 고분을 분류하기 이전에 다곽식 고분이 어떤 묘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곽식 고분은 여러 묘곽이 모여 하나의 묘역을 공유하면서 배치되어 있다. 이에 다곽식 고분의 성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 묘곽을 분류하고 이러한 묘곽이 어떤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피장자에 배당된 사회적 정체성의 한 단면이 묘곽과 부장유물에 반영되어 있으리라고 전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 따라 묘곽을 분류하려면 묘곽의 종류, 크기, 축조 시기, 부장품 등 다양한 속성들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정체성이란 피장자가 생전에 생득적·후천적으로 얻게 된 개인적인 특성을 말하며, 피장자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어 갔었으리라고 생각된다(Chris Fowler 2004: 4). 무덤의 축조 혹은 매장행위는 단순히 피장자가 생전에 가졌던 사회적 페르소나를 반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무덤의 축조에 참여하거나 무덤의 피장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죽음과 무덤 그리고 피장자에 대한 기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Thomas 1996: 51~52). 그러한 가운데 피장자의 정체성을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 재해석하게 되고 그러한 인식이 매장의례에 표현되리라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부장품은 피장자가 살아생전 사회 내 지위, 역할, 혹은 성별 등을 감안하여 무덤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피장자를 나타낼 수 있는 정체성이라 여기고 이를 함께 묻어준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그중에서도 피장자의 정체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부장품이라고 전제해두고 부장품을 중심으로 피장자의 정체성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 직업과 남녀의 구분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장품을 준비했을 것이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다고 생각되고 피장자로부터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부장품을 준비했다면 그러한 차별화가 부장유물에 나타났을 것이다.

따라서 유물의 조합상을 통해 묘곽의 피장자 사회적 지위, 성별, 직업 등의 정체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위란 피장자가 생전에 어떤 위계성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의 무덤에는 후장이 배풀어져 피장자의 권위를 과시하고자 했을 것이다. 유물의 수량이 많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대적인 지위를 추론할 때는 유물의 수량적인 면도 충분히 고려사항이 된다고 생각된다. 토기와 철기 같은 기본 부장품의 수량과 함께 금공품 유무를 통해 지위의 등급을 파악해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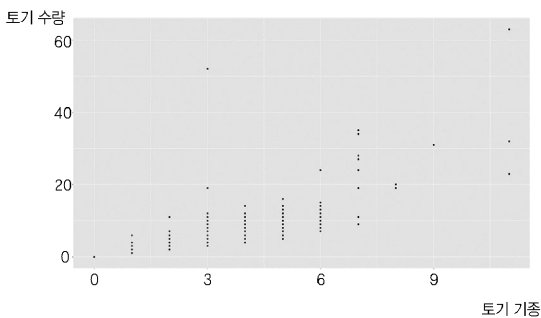
사회적 지위를 판단하는 요소로는 토기 기종 대비 토기 부장 수량, 철기 부장 수량, 금공품 부장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을 판단해보고자 했다. 그 결과 사회적 지위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판단했다.

(1) 토기 기종 대비 토기 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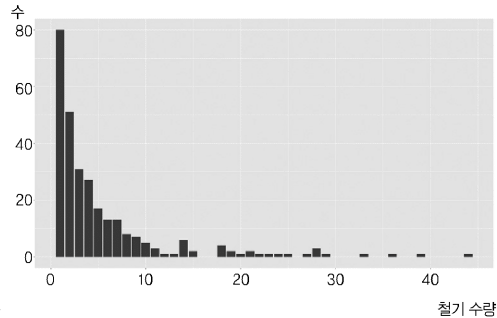
묘곽 내에 토기 기종의 조합이 증가할수록 토기의 수량도 증가하는 점을 알 수 있다. 토기의 기종을 달리해서 부장하는 것은 피장자의 장례 행위에 사용했거나 사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릇을 봉헌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토기 기종 수가 많고 토기의 부장량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보고자 한다.

(2) 철기 수량

철기는 피장자가 생전에 사용했던 사용재나 위신재 등의 의미로 다양한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철기는 수량적인 부분도 사회적 지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결국 어떠한 철기가 부장되었는가가 사회적 지위를 파악하는데 핵심이다. 하지만 철기 조합에 관한 분석은 후에 피장자의 직능을 구분하며 분석할 예정이므로 사회적 지위를 판단하는데에는 철기의 수량을 통해서만 판단하고자 한다.



[도면 2] 토기 기종 대비 토기 수량



[도면 3] 철기 수량

(3) 금공품 부장 유무

금공품은 매우 한정된 사람들이 권력의 과시를 위해 소유하는 위신제 가운데 대표적인 물품이다. 금공품이 부장된 매장시설의 피장자는 지위가 높을 것이라고 전제된다. 금공품이 부장된 묘곽은 579의 유구 중 26기이며 [표 2]와 같다. 금공품이 부장된 고분군도 매우 한정되어 있어 합천 삼가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 산청 생초고분군, 고성 내산리고분군 등 전체 연구 대상의 고분군 15개소 중에 4개 고분군만이 금공품이 부장된 매장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고분군 내에서도 금공품을 부장한 묘곽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그러한 매장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고분군 자체의 위계도 소가야 내에서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금공품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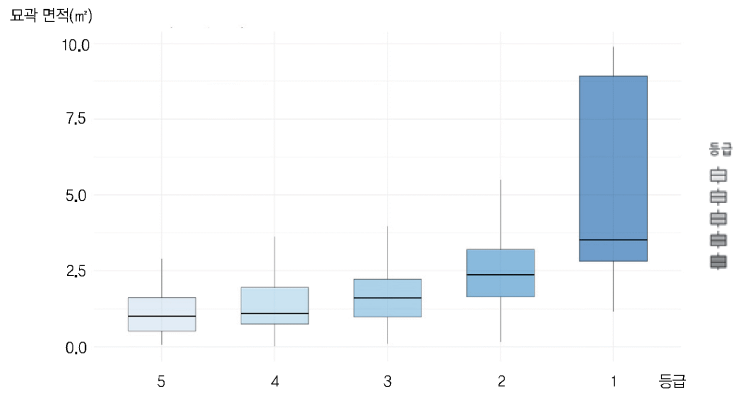
연번	곽명	이식	경식	금구	천	금제주식
1	삼가D1-G	○				
2	삼가2-M2-2	○				
3	삼가2-M4-3	○				
4	삼가2-M10-5	○				
5	삼가2-M15-1	○				
6	삼가2-M17-9	○				
7	삼가D69-1	○				
8	삼가1-M3-1	○				
9	삼가1-M3-2	○				
10	삼가1-M5-1	○				
11	삼가1-M8-5	○				
12	삼가1-M10-1	○				
13	삼가1-M10-3	○				
14	삼가1-M10-4	○				
15	삼가1-M10-7	○				
16	삼가1-3	○				
17	삼가1-26	○				
18	송학1A-1		○	○		
19	생초M4-1		○			
20	내산Ⅱ 34주곽			○	○	
21	내산Ⅱ 34-1				○	
22	내산Ⅰ 21-1			○		
23	내산Ⅰ 28-1				○	
24	송학1A-6			○		
25	송학1A-11					○
26	생초M12호분				○	

따라서 579개의 묘곽을 토기 수량, 철기 수량, 금공품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등급으로 나누었다.¹⁾ 이후 등급과 묘곽 크기 간의 상관관계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등급이 높을수록 묘곽의 평균 면적이 큰 경향을 보였다. 1등급의 평균 면적은 약 4㎡, 2등급은 약 2.5㎡, 3등급은 약 2㎡, 4등급은 약 1.2㎡, 5등급은 약 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묘곽의 크기가 클수록 높은 등급(1등급)에 해당하고, 작을수록 낮은 등급(5등급)에 해당하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1등급 묘곽은 매장시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피장자의 매장시설로 토기 기종 및 수량, 철기 수량이 가장 많고 금공품까지 부장된다. 이는 고분군 내에서도 높은 위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피장자는 소가야 지역군 내에서도 가장 높은 위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인다. 2등급은 토기 기종 및 수량, 철기 수량

1) 지면 관계상 579개의 묘곽을 1~5등급으로 분류한 내용은 실지 못하였으나, 필자의 석사 논문(류승혜 2024)에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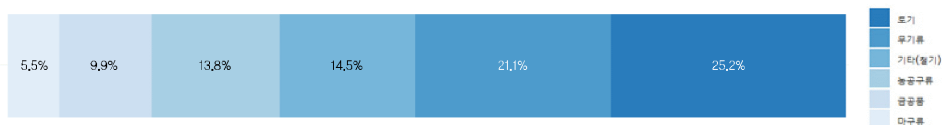
[도면 4] 등급과 묘곽 크기의 상관관계

이 많은 묘곽에 속하고 금공품도 부장되고 있으나 1등급보다는 수량적으로 못 미치는 경우를 2등급으로 설정했다. 이들은 각 고분군 내에서는 최고 위계를 가지나 소가야 권역 전체에서는 가장 높은 위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3등급의 경우에는 토기의 기종 조합, 철기 수량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금공품이 부장되기도 한 묘곽이다. 금공품을 부장함으로써 위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을 알 수 있지만, 2등급처럼 고분군 내에서 높은 지위에 속하는 계층은 아니었다. 4등급은 토기의 기종 조합 및 토기와 철기의 부장량이 적고 금공품 역시 부장되어 있지 않은 피장자들이다. 이들은 고분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위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5등급은 유물이 거의 부장되지 않은 등급으로 고분군 내에서 최하위의 위계에 포함된다.

2) 성별

성별의 정체성은 남과 여 이원론적 구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가야 고분군에서는 인골과 같은 직접적인 자료가 결여된 상태가 일반적이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안된 몇 가지 가설(대도 가설 등)을 고려하여 추정이 가능한 매장시설에 대해서만 성별을 판단했다(김선주 2010; 김성태 2016; 하대룡 2016, 2019, 2023). 일부 발굴된 인골 자료와 대도와 방추차, 옥을 중심으로 성별을 규명하고자 한 시도를 참고하여 피장자의 성적 정체성을 추론하였다. 성별 구분을 유물을 통해 말한다는 점은 논리적 비약이 될 수도 있으나, 인골이 출토되지 않아 피장자의 성별을 명확히 할 수 없기에 부장 유물을 참고하여 추론해보고자 하였다.

대도와 함께 동반되는 유물군으로 토기류 25.2%, 철제 무기류 21.2%, 철제 농공구류 13.8%, 철제 마구류 5.5%, 기타 철기류 14.5%, 금공품 9.9%이다. 방추차와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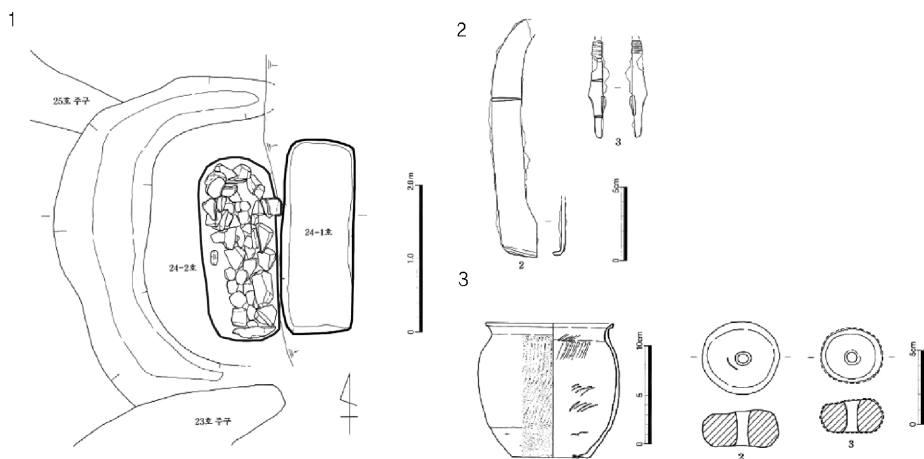
[도면 5] 대도 동반 유물군



[도면 6] 방추차 동반 유물군

계 동반되는 유물군으로 토기류 54.1%, 철제 무기류 2.9%, 철제 농공구류 6.2%, 철제 마구류 1.3%, 기타 철기류 15.6%, 금공품 2.7%, 옥 17.3%이다. 대도와 동반되는 유물군은 토기류의 부장이 상대적으로 낮고, 철기의 부장 비율이 높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철제 무기류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방추차와 동반되는 유물군에서는 토기류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철기류의 부장 비율은 낮다. 또한, 방추차와 동반되는 유물군은 옥이 17.3%의 높은 비율을 가지며 같이 부장되나 대도와 옥은 함께 부장되지 않는다.

이에 선행 연구와 연구 대상지의 유물군을 참고하여 방추차는 여성, 대도는 남성으로 구분해보고자 한다. 대도와 방추차는 동반되는 유물군이 확연히 다르며 이는 대도와 방추차가 피장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부장품의 역할을 어느 정도 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번 연구 대상지의 유구에서도 방추차와 대도가 배타적으로 부장되는



[도면 7] 성별 구분(1: 명동1-24, 2: 1-24-1(남성), 3: 명동1-24-2(여성))

점, 함께 부장되는 유물군도 상이하다는 점 등을 통해 방추차와 대도를 성별 구분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3) 직능

직능은 생전에 사회에서 어떤 직업적 역할을 수행했는가에 관한 것으로 철기 조합상을 통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철기는 매장의례에 봉헌되는 물품이면서 동시에 생전에 사용되었던 실용의 도구였다. 철기가 실용의 도구였다는 점에서 피장자의 개인의 사회적 활동이나 직업적인 역할을 추론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문묘에 부장된 철기의 각 기종별 빈도와 조합²⁾을 통해 피장자 개인의 사회적 직능을 추론해보고자 한다.

부장품의 분류를 통한 등급, 혹은 유형 설정이 피장자의 당시 사회적 위계나 정체성과 일대일로 대응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이희준 2011: 53~54) 있다. 그러나 부장품 가운데 매장의례를 통해 피장자의 사회적 활동을 표상하고 기억하기 위해 부장하는 물품이 철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박지민 2023: 122), 철기 부장의 유형을 통해 피장자의 사회적 역할, 혹은 직능을 추론해보고자 했다.

철기의 조합상을 확인해볼 수 있는 고분군의 묘곽들을 대상으로 철기 부장 양상을 검토해보았다. 철촉, 도자 등과 같이 가장 흔하게 부장되는 철기 기종은 어느 매장 시설에서나 볼 수 있지만 마구나 환두대도와 같은 철기는 상위의 극히 일부의 매장 시설에만 부장된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 철기가 부장된 매장시설에는 여타의 철기 기종까지 빠짐없이 부장된다. 따라서 철기 기종별 조합수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더 중요한 철기 기종이 추가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첫째, 부장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철기 기종이 다곽식 고분 내에서 대략 30% 미만의 부장비율을 가진다. 가장 흔한 기종인 철촉이 다곽식 고분에서는 대략 30% 미만의 비율을 가지는 것은 철기를 소유한 것만으로도 일정 지위 이상이었음을 상정할 수 있다.

둘째, 조합수 별 철기 출토 빈도는 철촉과 농공구류나 무기류, 마구류가 조합수가 증가할수록 추가로 부장되는 패턴을 보인다. 단일 부장이 대개 많이 이루어지는 기종인 철촉을 바탕으로 철검을 비롯한 농공구류가 부장되며, 조합이 추가될수록 무기류가 추가 조합을 이룬다.

셋째, 유자이기, 주조철부, 철탁, 철착, 살포, 삽날, 철사 등의 철기는 출토 사례가

2) 철기 조합수 별 기종조합 빈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다(김민범 2016; 박지민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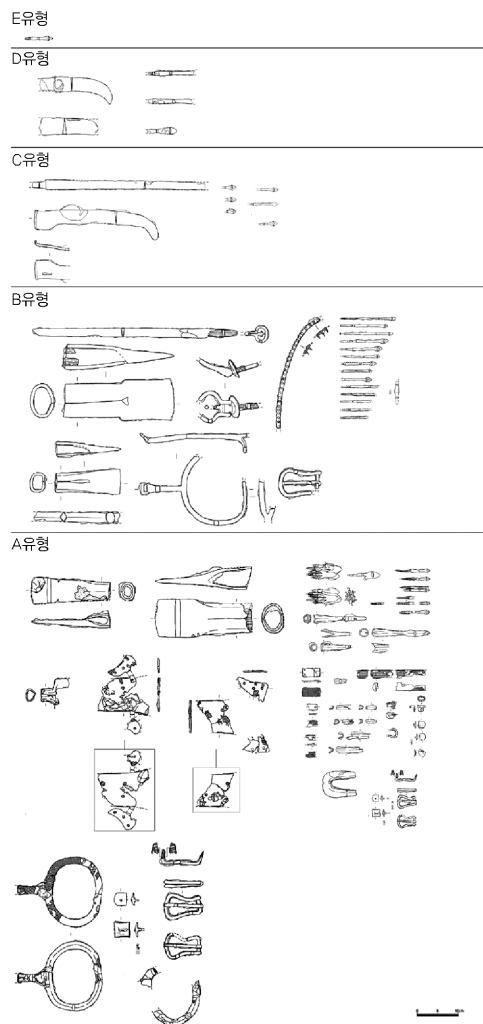
매우 적어 희귀한 기종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철기는 조합 기종에 따른 패턴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속한다.

철기의 조합 패턴을 바탕으로 설정한 철기 부장유형은 ①A유형: 철촉+농공구류+무기류+마구류, ②B유형: 철촉+농공구류+무기류 2종 이상, ③C유형: 철촉+농공구류+무기류 또는 무기류, ④D유형: 철촉+농공구류 또는 농공구류, ⑤E유형: 철촉이다.

A유형은 철촉인 기본철기와 농공구류와 무기류, 다량의 마구류가 부장된 묘곽이다. 이 무덤의 피장자들은 어떤 전문적인 역할의 수행보다 다목적 고분의 피장자들 내에서 최고 위계에 해당되는 인물로 파악된다. 그러면서 해당 집단에서는 경제적, 군사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이 부여된 사람일 것으로 추론된다. 흔하지 않은 마구류 등의 기종을 다량으로 부장한 것을 볼 때, 말을 소유하고 운용하며 이를 통해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A유형은 지역 집단의 리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B유형은 철촉인 기본철기와 농공구류와 무기류 2종 이상이나 유자이기 등 특수성을 띄는 유물이 부장되어 있는 묘곽이다. 이 묘곽의 피장자들은 집단 내에서 C유형보다 높은 위계를 가지며 우두머리 역할을 하거나 전투나 전쟁에서는 실질적인 지휘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B유형은 일부 집단에서는 A유형을 대신하는 리더 역할을 하기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C유형은 철촉인 기본철기와 농공구류와 무기류 1종이 부장된 묘곽이다. 이 피장



[도면 8] 철기 부장 유형 설정

자들의 사회적 역할은 기본 생산활동에 참여하면서 전쟁이나 전투 활동에서 D유형보다 더 큰 임무를 수행했으리라 여겨진다. 그리고 때로는 다곽식 고분 피장자 가운데 최고 위계에 속하며 집단에서 리더에 준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D유형은 철촉인 기본철기 부장과 함께 농공구류가 부장된 묘곽이다. 이 매장시설 피장자의 사회적인 역할은 농업과 같은 기본 생산활동에 참여하며, 필요시 전투에 투입이 되지만 E유형보다는 지위가 높았을 것이다. E유형이 직접적으로 노동에 참여한다면, D유형은 E유형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이끄는 임무를 수행했을 것이다. 평소에는 집단 내부의 경계와 경비를 담당하며 필요시 전투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E유형은 가장 기본적인 철기, 철촉이 부장된 묘곽이다. 이들의 사회적 역할은 집단 내에서 생활 활동에 전담하며, 필요시 전투나 전쟁에 투입된 가능성이 있는 구성원이다. 이들을 일시적으로라도 전투나 전쟁에 참여한 인원인 것으로 보고자 한다.

4) 묘곽의 유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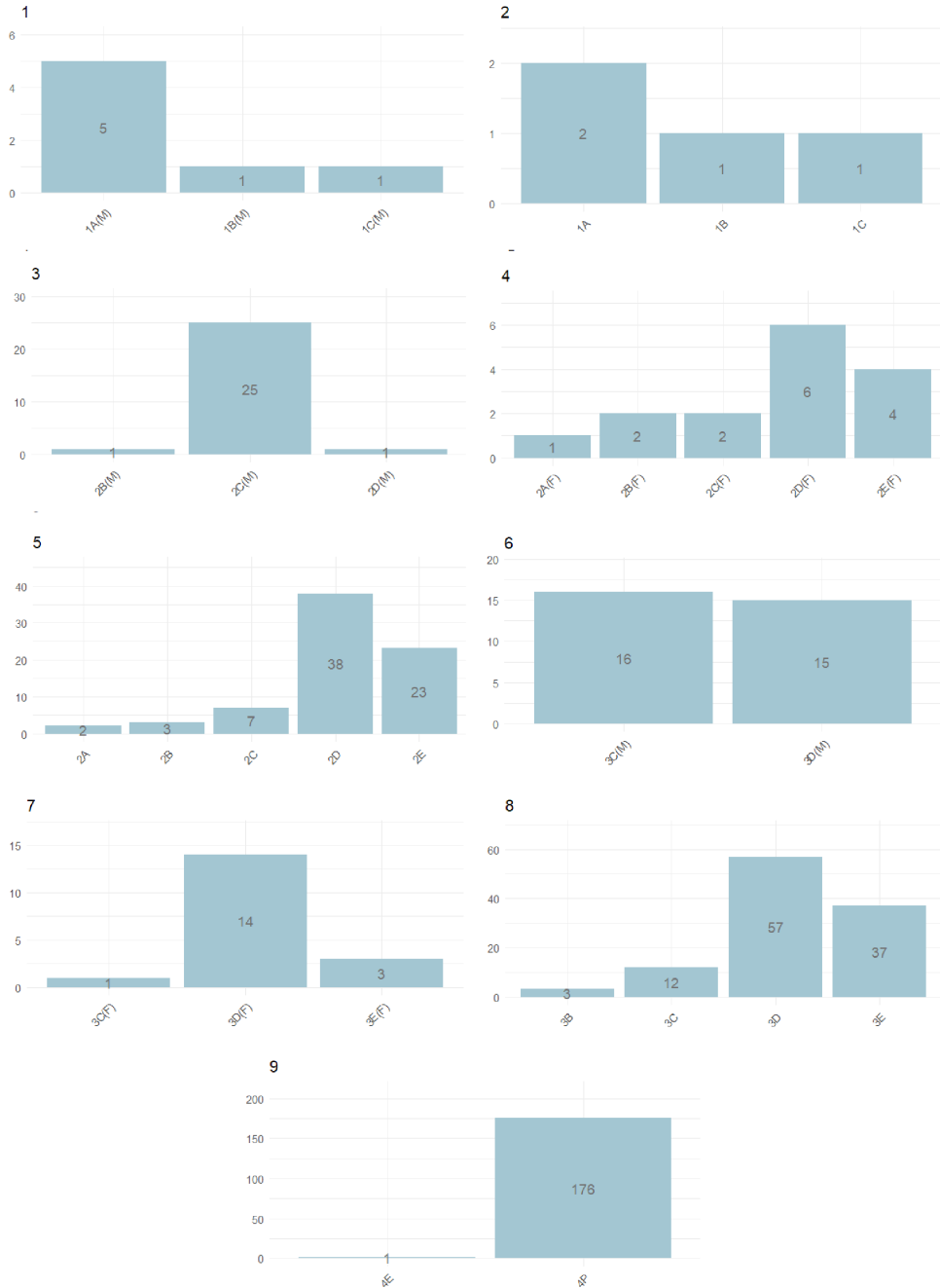
앞서 설정한 사회적 지위와 성별, 직능을 고려하여 피장자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묘곽의 유형을 설정했다. 사회적 지위는 부장 유물을 바탕으로 설정하여 유물이 출토되는 모든 곽에 대한 등급 설정이 가능했다. 따라서 묘곽 유형 설정은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하며, 성별은 방추차와 대도가 출토되지 않은 묘곽에서는 성별 설정이 어려웠기에 성별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분류된 유형은 총 9가지로 1등급 남성, 1등급 성별 미상, 2등급 남성, 2등급 여성, 2등급 성별 미상, 3등급 남성, 3등급 여성, 3등급 성별 미상, 4등급 성별 미상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직능은 사회적 지위와 성별을 분류한 후에 직능별 수(도면 9)를 파악하였다.

[표 3] 묘곽 유형 설정

연번	유형
1	1등급 남성
2	1등급 성별 미상
3	2등급 남성
4	2등급 여성
5	2등급 성별 미상
6	3등급 남성
7	3등급 여성
8	3등급 성별 미상
9	4등급 성별 미상

1등급 남성의 묘곽은 소가야 전체 고분군의 모든 고분 가운데 가장 높은 위계에 해당되는 매장시설이다. 1등급의 계층은 토기와 철기 모두 가장 많이 부장되며, 금공품까지 부장하고 있다. 부장 유물을 살펴보면, 토기는 다양한 기종을 바탕으로 하여 많은 수량을 세트로 부장하고 있다. 철기의 경우, 농공구류와 무기류, 마구류 모두를 부장하고 있으며 그 수량 역시 많다. 철기 조합을 통한 1등급 남성의 직능을 살펴보자면 A유형의 남성이 5개로 가장 많고, B유형의 1개, C유형 1개이다. 1등급 남성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직능 A유형은 기본철기인 철촉과 농공구류와 무기류, 다량의 마구류가 부장된 묘곽의 피장자들이다. 이들은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다



[도면 9] 묘곽의 유형 별 직능 수량(1: 1등급 남성, 2: 1등급 성별 미상, 3: 2등급 남성, 4: 2등급 여성, 5: 2등급 성별 미상, 6: 3등급 남성, 7: 3등급 여성, 8: 3등급 성별 미상, 9: 4등급 성별 미상)

곽식 고분 피장자들 내에서 최고 위계를 가지며 집단에서 경제적, 군사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이 부여된 사람들로 추정된다. 1등급 남성이 A유형의 직능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소가야 내에서 가장 높은 위계에 속하며 최상위 고분군 내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분군 내에서 리더일 뿐만 아니라 소가야 지역 전체에서 수장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전제된다. 또한, 혼하지 않은 마구류 등의 기종을 다량으로 부장한 것을 볼 때, 말을 소유하며 운용한 것을 물론이며 말을 장식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배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1등급의 A유형은 지역 집단의 지배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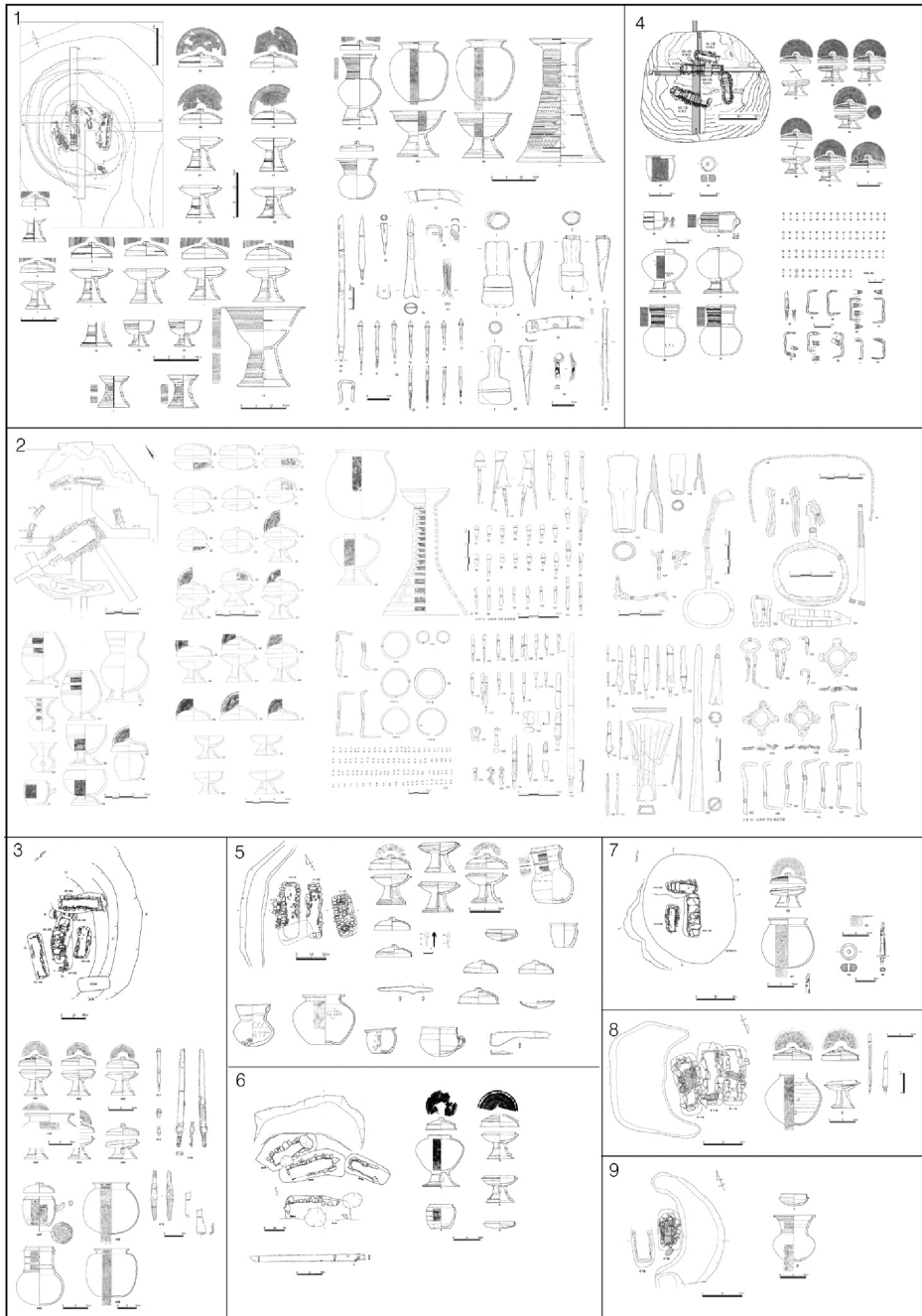
1등급 성별 미상의 묘곽은 성별을 판단할 수 있는 대도나 방추차가 부장되지는 않지만 부장품의 수량이 많고 위세품을 포함하고 있는 매장시설이다. 1등급의 성별 미상은 1등급의 남성과 마찬가지로 고분군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소가야 내에서도 가장 높은 위계에 속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1등급의 계층은 토기와 철기 모두 가장 많이 부장되며, 금공품까지 부장되는 매장시설이다. 부장 유물을 살펴보면, 토기는 다양한 기종을 바탕으로 하여 많은 수량을 세트로 부장하고 있다. 철기의 경우, 농공구류와 무기류, 마구류 모두를 부장하고 있으며 그 수량 역시 많다. 철기 조합을 통한 1등급 성별 미상의 직능을 살펴보자면 A유형의 2개, B유형의 1개, C유형 1개이다. 직능 A유형은 기본철기인 철촉과 농공구류와 무기류, 다량의 마구류가 부장된 피장자이다. 이들은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다곽식 고분 피장자들 내에서 최고 위계를 가지며 집단에서 경제적, 군사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이 부여된 사람들로 추정된다. 또한, 1등급의 성별 미상의 묘곽의 유물 중 유자이기, 청동령, 철환 등 제의용으로 사용되었으리라고 추정되는 부장품이 확인되는 피장자가 있다. 이는 집단 내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제의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옥이나 천이 다량으로 부장된 묘곽의 피장자는 그와 같은 장신구류를 통해 위세를 과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1등급 성별 미상 역시 1등급 남성과 마찬가지로 고분군 내에서의 리더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2등급의 남성의 묘곽은 1등급보다는 위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래도 고분군 내에서는 높은 위계에 해당하는 매장시설이다. 2등급의 계층은 토기와 철기 모두 많이 부장되나 1등급과는 그 수량이 차이가 난다. 부장 유물을 살펴보면, 토기는 기종 대비 수량이 많도록 세트 부장을 하고 있다. 철기는 농공구류와 무기류를 주로 부장하고 있으며 마구류도 소량 부장하는 경우가 있다. 철기 조합을 통한 2등급 남성의 직

능을 살펴보자면 B유형의 남성이 25개로 가장 많고, B유형과 D유형은 1개이다. 2등급 남성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직능 C유형은 철축인 기본철기와 농공구류와 무기류 1종을 부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사회적 역할은 기본 생산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전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로 보여진다. 그리고 때로는 다곽식 고분 피장자들 중 최고 위계에 해당할 때도 있으며, 집단에서 리더에 준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A유형과 B유형이 없는 합천 안계리고분군, 합천 소오리고분군, 의령 경산리고분군, 의령 오천리고분군, 산청 명동 유적, 산청 생초고분군, 통영 남평리고분군, 통영 팔천곡고분군 내에서는 2등급의 C유형이 고분군의 리더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같은 C유형이지만 고분군 내에 상위 위계가 없는 경우에는 고분군 내에서 실질적인 리더의 역할을 수행했으리라고 생각된다.

2등급의 여성의 묘곽은 1등급보다는 상대적으로 위계가 낮지만 고분군 내에서는 높은 위계에 해당하는 매장시설이다. 2등급의 계층은 토기와 철기 모두 많이 부장되거나 1등급과는 그 수량이 차이가 난다. 부장 유물을 살펴보면, 토기는 기종 대비 수량이 많도록 세트 부장을 하고 있다. 2등급 여성의 경우에는 철기의 수량보다는 토기의 수량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토기 부장과 함께 여성용 가채로 보이는 구슬이 다량 부장되기도 한다. 철기는 공격용 무기류보다는 꺾쇠와 같은 부장용 철기류가 다량 부장된다. 2등급 여성이 가지고 있는 직능은 A유형부터 F유형까지 다양했으며, 그 중 D유형의 직능을 가진 여성의 수가 가장 많았다. 직능의 수는 D유형이 6개, E유형이 4개, C유형과 B유형이 2개, A유형과 F유형이 1개씩이다. 가장 많은 수를 가진 D유형은 기본철기인 철축과 함께 농공구류가 부장된 묘곽의 피장자이다. 이들의 사회적인 역할은 농업과 같은 기본 생산활동에 참여하며, 필요시 전투나 전쟁에 투입이 되었을 것이다. 앞선 2등급 남성이 C유형에 해당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던데 반해 같은 등급이지만 여성의 경우 D유형이 많은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전투의 참여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등급의 성별 미상의 묘곽은 1등급보다는 상대적으로 위계가 낮지만 고분군 내에서는 높은 위계에 해당하는 매장시설이다. 2등급의 계층은 토기와 철기 모두 많이 부장되거나 1등급과는 그 수량이 차이가 난다. 부장 유물을 살펴보면, 토기는 기종 대비 수량이 많도록 세트 부장을 하고 있다. 2등급 성별 미상의 경우 특징적인 유물이 부장되기 보다는 토기와 농공구류 철기 위주로 부장되고 있다. 2등급 성별 미상이 가지고 있는 직능은 A유형부터 F유형까지 다양했으며, 그 중 D유형의 직능을 가진 성별



[도면 10] 묘곽 유형 유물조합

(1: 1등급 남성-진주 회망공원 내 1-1, 2: 1등급 성별 미상-내산Ⅱ 34주곽, 3: 2등급 남성-삼가2-M3-6, 4: 2등급 여성-합천D-69-1, 5: 2등급 성별 미상-신용4-4, 6: 3등급 남성-천곡2-39-1, 7: 3등급 여성-삼가M16-1, 8: 3등급 성별 미상-명동2-9-1, 9: 4등급 성별 미상-2-8-2)

미상의 수가 가장 많았다. 직능의 수는 D유형이 38개, E유형이 23개, C유형은 7개, B유형과 F유형이 3개, A유형이 2개이다.

3등급의 남성의 묘곽은 토기와 철기를 고루 부장하나 그 수량이 많지 않고, 금공품을 부장하고 있는 매장시설이다. 토기 부장의 경우 수량이 적으며, 철기의 부장 경우에도 그 수량이 많지는 않으나 대도 같은 공격용 무기가 부장되고 있다. 철기 조합을 통한 3등급 남성의 직능을 살펴보자면 C유형의 남성이 16개, D유형은 15개이다. 3등급 남성은 C유형과 D유형이 거의 비슷한 수량을 가진다. 3등급에 C유형은 고분 내에서 리더로 활동하기보다는 농업과 같은 기본 생산활동에 주로 참여했을 것이다. 다만 필요시 전쟁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했을 것이다. 3등급의 남성은 C유형과 D유형만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를 통해 고분군 내에서 중간 위계로 추정되는 남성 인원들의 직능은 한정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3등급의 여성의 묘곽은 토기와 철기가 고루 부장되어 있으나 그 수량이 많지 않고, 금공품이 부장되기도 한 매장시설이다. 토기 부장의 경우 수량이 적으며, 방추차를 부장하고 있다. 토기와 철기 수량이 그리 많지 않고 성별을 나타내는 유물이 부장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철기 조합을 통한 3등급 여성의 직능을 살펴보자면 D유형이 14개, E유형은 3개, C유형과 F유형은 1개이다. 3등급 여성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직능인 D유형은 철촉과 농공구류를 모두 부장하기보다는 농공구류 1종만을 부장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3등급 여성에게 필요시에 전투나 전쟁에 투입되는 역할보다는 농업과 같은 기본 생산활동으로서의 역할이 더 요구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3등급의 성별 미상의 묘곽은 토기의 기종 조합, 철기 수량은 낮으나 금공품이 부장되기도 한 매장시설이다. 금공품을 부장함으로써 위계성을 나타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지만, 2등급처럼 고분군 내에서 높은 지위에 해당되는 계층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성별을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은 출토되지 않으며, 주로 소량의 토기와 농공구류나 철촉이 부장된다. 3등급 성별 미상의 직능을 살펴보면 D유형이 57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E유형이 37개, F유형이 8개, C유형이 12개, B유형이 3개이다.

4등급 성별 미상의 묘곽은 토기의 기종 조합, 철기 수량이 낮고 금공품 역시 부장하지 않은 매장시설이다. 4등급은 대부분 토기를 제외한 유물은 부장되지 않으며, E유형이 1개 속해 있는 성별 미상은 토기가 부장되지 않고 철촉만 부장된 경우이다. 4등급에서 철기 조합에 따른 직능을 가지고 있는 유구는 E유형 1개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토기만 부장되어 있다. 4등급의 토기만 부장된 경우는 176개이다. 이처럼

4등급은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유물이 부장되지 않아 이들의 사회적 역할 역시 모호했거나 위계가 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Ⅲ. 다곽식 고분의 유형과 매장례

1. 다곽식 고분의 유형화

피장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묘곽 1~9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묘곽의 조합과 배치를 고려하여 다곽식 고분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묘곽 조합을 설정할 때, 이미 정의된 피장자의 등급에 직능의 특징을 결합하여 분류하였다. 여기에 묘곽 조합과 묘곽 배치를 함께 고려하여 다곽식 고분을 유형화해보고자 했다.

우선 피장자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분류된 묘곽의 조합을 살펴보고자 한다. 피장자의 정체성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매장시설들을 중심으로 분류해보았을 때, 묘곽의 조합 유형은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I 유형은 1등급의 남성 1명과 2·3·4등급의 여성 2명 혹은 성별 미상 2명 이상이 매장되는 경우이다. I 유형은 1등급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조합이다. 1등급 남성의 묘곽이 묘역의 중심에 위치하며 그 주변에 2·3·4등급의 여성 2명 혹은 성별 미상 2명 이상의 묘곽이 함께 배치되어 있다. I 유형은 최상위 위계의 남성이 1명만 매장되며 최상위 남성의 묘곽은 분묘 내에서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묘곽을 조성할 때 최상위 위계의 남성을 고려하고 이를 중심으로 묘곽을 형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함께 매장된 여성이 2명 이상으로 보이는 묘곽의 조합도 있다. 그 외에 성별 미상인 묘곽들은 리더를 따르던 하위자들의 매장시설로 보인다.

II 유형은 2·3등급 남성 2명과 2·3등급의 여성 2명 혹은 4·5등급의 성별 미상 2명 이상이 매장되는 경우이다. II 유형의 경우 2·3등급이 주로 매장되는 분묘로 분묘 내에서 독보적인 상위의 위계를 가진 묘곽이 있다기보다는 비슷한 위계를 가진 묘곽들이 함께 매장되어 있다. 묘곽이 조성되는 과정에서도 중심부에 특정 위계나 성별이 위치하기보다는 처음 축조된 묘곽이 능선상의 하단부쪽에 먼저 축조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단부 쪽으로 중첩해서 축조되는 양상이다. II 유형의 분묘는 묘곽의 중심 피장자를 정해두고 축조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피장

자들이 사망 시점에 따라 순서대로 묻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분묘 내에서는 I 유형과는 다르게 성별 미상이라고 하더라도 낮은 위계가 아닌 비슷한 위계를 가진 것으로 보아 비교적 수평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매장된 것으로 보인다.

III유형은 2·3등급의 남성 1명과 3·4·5등급의 성별 미상 2명 이상이 함께 매장된 분묘이다. III유형의 경우 2·3등급의 남성이 매장되기는 하나 다른 성별을 추론할 수 있는 비슷한 등급의 묘곽은 매장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2등급의 남성과 가까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매장되거나, 2명이 매장되더라도 그 위계가 높은 경우 III유형으로 설정했다. 혹은 2개의 묘곽만 배치되어 있지만 둘 중 하나라도 2등급의 높은 위계에 해당될 때 III유형으로 분류했다.

IV유형은 3·4·5등급 남성 1명과 3·4·5등급 여성 혹은 성별 미상이 1명이 매장된 경우이다. 이 유형은 3·4·5등급의 남성이나 여성이 함께 합장된 분구묘이다. 남성과 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묘곽이 함께 매장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남성 혹은 여성을 구분할 수 있는 묘곽과 나머지 한 묘곽은 성별 미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는 낮은 위계의 부부 무덤으로 보인다. II 유형과 마찬가지로 묘곽이 조성되는 과정에서도 중심부에 특정 위계나 성별이 위치하기 보다는 처음 축조된 묘곽이 구릉 사면의 아래쪽에 축조되고, 그 위쪽으로 중첩해서 추가 묘곽이 축조되는 형태이다.

다음으로 묘곽의 배치는 묘곽의 규모, 축조 순서, 배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총 4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대형 묘곽 1기와 소형의 묘곽 여러 기가 복합형으로 배치된 것이 a유형이다. 중심에 위치한 대형 묘곽과 주변 소형 묘곽의 등급이나 규모 차이가 명확히 보이는 것으로 하나의 묘곽을 중심으로 다수의 묘곽들이 중심을 감싸는 듯한 배치를 하고 있다. 가장 먼저 축조되는 대형 묘곽이 분묘의 중심에 위치하며, 후축하는 묘곽들은 일관된 장축 방향 없이 큰 묘곽을 둘러싸는 모습으로 축조된다.

b유형은 대형 묘곽 1기와 소형 묘곽이 병렬에 가깝게 배치되어 있다. 이는 중심에 위치하는 묘곽과 주변 묘곽의 등급이나 규모의 차이가 보이나 중심 묘곽을 제외하고 3개 이하의 묘곽이 배치되는 경우이다. 이 유형은 중심으로 보이는 대형 묘곽이 가장 먼저 축조되며 분묘의 중심에 위치한다. 이후 후축하는 묘곽은 소형의 크기로 병렬 배치이기는 하나 대형 묘곽을 중심으로 확장되어 병렬되는 형태로 확장 병렬형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c유형은 비슷한 크기의 묘곽 여러 기가 대략 병렬에 가깝게 배치된 다곽식 분묘이다. 묘곽의 규모와 등급의 일관성 없이 선축 묘곽이 구릉 사면 아래쪽에 축조되며, 후

축 묘곽은 선축 묘곽의 상단부에 축조되어 원래 분구에 중첩하는 형태이다. 이는 선축 묘곽의 분구를 고대하게 보이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된다. 또한 후축 묘곽을 의식해 묘역을 확보하거나 분묘 중심에서 치우쳐 묘곽을 배치하는 점도 후축 고분을 고려한 축조로 생각된다.

d유형은 비슷한 크기의 묘곽 3기 이하가 병렬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이 유형의 묘곽은 규모와 등급이 모두 비슷하며 묘곽이 11자형으로 병렬하여 배치된다. 축조 순서는 선축 묘곽이 구릉 사면의 아래쪽에 축조되고 후축 묘곽은 그 위쪽에 축조된다. 두 묘곽의 장축 방향이 평행하지만, 일부는 그중 하나가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선축 묘곽의 방향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후축 묘곽을 배치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또한, 분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선축 묘곽에 주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후축 묘곽이 들어서면서 주구를 파괴하고, 선축 묘곽에 주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후축된 묘곽을 중심으로 주구가 설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2. 고분의 유형에 따른 매장의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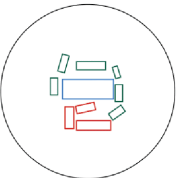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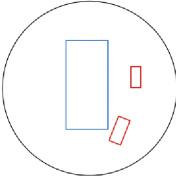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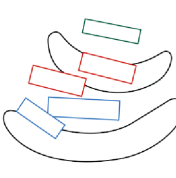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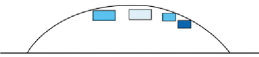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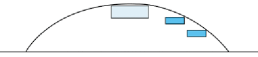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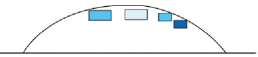
무덤은 단순히 그 무덤이 축조될 당시의 해당 사회의 정태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전통적이고 관습적으로 지닌, 경우에 따라서는 규범화되어있는 일련의 장례행위의 절차와 형식의 일부, 즉 사회적 행위로서 장례의 마지막 단계인 동시에 제사와 같은 또 다른 사회적 행위의 출발점이 된다(김종일 2024: 10). 이에 무덤이 형성되는 과정에 포함된 모든 행위를 종합하였을 때 이는 집단의 특수한 매장행위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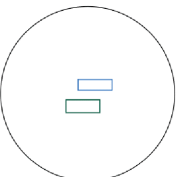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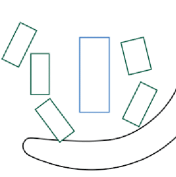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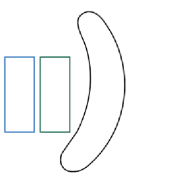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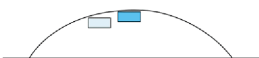
매장의례란 사람이 죽은 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장지를 정지하고 무덤을 형성할 때까지의 행위이다(김용성 2014; 김은경 2020, 2022; 서현주 2020: 152). 이러한 행위의 결과물이 무덤이라는 물질적 산물로 나타난다. 시신을 운반하고 장지가 무덤으로 조성되는 과정을 매장의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무덤에 남겨지게 된다. 고분의 축조, 매장의 절차, 부장유물의 배치, 봉분의 조성과 묘역시설의 구축, 봉분 제사 등 매장의례라는 행위의 과정은 상당 부분 무덤에 결과물로 남겨진다.

본고에서는 앞선 검토를 통한 묘곽의 조합과 묘곽의 배치를 바탕으로 다곽식 고분의 매장의례 유형을 6가지(도면 11)로 분류할 수 있었다. 6가지의 유형은 묘곽 조합, 묘곽 배치, 축조 기간, 축조 순서 등의 속성을 달리하며 각기 다른 매장의례를 행

하여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고자 하였을 것이다.

I a유형은 1등급의 남성 1명과 2·3·4등급의 여성 2명 혹은 성별 미상 2명 이상이 매장되며, 대형 묘곽 1기와 소형의 묘곽 여러 기가 복합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배치를 살펴보면 중앙에 1등급 남성이 대형 묘곽으로 중심부에 자리하며, 그 주변으로 소형 묘곽이 대형 묘곽을 두르듯이 자리하고 있다. 축조 순서 역시 대형 묘곽이 축조된 후 소형 묘곽들이 축조되며 축조 기간은 한 분기 내 이뤄지고 있다. 구성원은 1등급 남성 1명이 분묘 내에서 중심 역할을 하며 매장되고 있다. 1등급 남성의 매장이 먼저 이뤄진 다음 혼인관계로 보이는 여성 묘곽의 매장이 뒤따라 이어진다. 이는 높은

	I a유형	I b유형	II c유형
배치도 성별 □ 남성 □ 여성 □ 성별 미상			
단면도 축조 순서 □ 1 번째 ■ 2 번째 ■ 3 번째 ■ 4 번째			
구성원	1등급 남성 1명 : 2·3·4등급 여성 2명+2·3·4 등급 성별 미상		2·3등급 남성 2명+ 2·3등급 여성 2명+ 4·5등급 성별 미상

	III d유형	III c유형	IV d유형
배치도 성별 □ 남성 □ 여성 □ 성별 미상			
단면도 축조 순서 □ 1 번째 ■ 2 번째 ■ 3 번째 ■ 4 번째			
구성원	2등급 남성 1명 : 3·4·5등급 성별 미상		3·4·5등급 남성 1명+ 3·4·5등급 여성 1명

[도면 11] 다곽식 고분의 모식도

위계의 남성이 먼저 묘곽을 형성하고 나면 이후 그 남성과 혼인관계의 여성이 매장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혼인관계를 가졌던 사람뿐만 아니라 높은 위계자를 따랐던 하위자도 함께 뒤이어 매장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Ia 유형은 높은 위계를 가진 남성 리더를 중심으로 혼인관계나 하위자가 다수가 함께 분묘를 형성한 최상위자 중심의 다곽식 고분으로 추정된다.

Ib 유형은 1등급의 남성 1명과 2·3·4등급의 여성 2명 혹은 성별 미상 2명 이상이 매장되며, 대형 묘곽 1기와 소형 묘곽이 확장 병렬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배치를 살펴보면 중앙에 높은 위계의 남성 한 명이 규모가 큰 묘곽을 사용하며 매장되며 주변의 소형 묘곽에 처로 보이는 피장자가 매장된다. 위계 높은 남성을 중심으로 분묘가 먼저 형성되고 그 보다 하위의 위계를 가진 여성이 추가 매장되거나 성별 미상이 소량 추가 매장된다. 한 분기 내에 축조가 완성됨으로 축조되는 묘곽의 피장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매장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구성원은 상위 위계의 남성과 처가 함께 매장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Ib 유형은 최상위자의 부부관계의 다곽식 고분으로 추측된다.

Ic 유형은 2·3등급 남성 2명과 2·3등급의 여성 2명 혹은 4·5등급의 성별 미상 2명이 확장 병렬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유형은 비슷한 크기의 묘곽이 축조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능선의 하위에서 상위로 축조되는 모습이다. 이는 매장과정에서 중심 묘곽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매장했다기보다는 사망 시점에 따라 매장했음을 알 수 있다. 구성원은 2·3등급의 여성과 남성이 2명 이상 매장되어 부부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두 그룹 이상 매장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징적인 점은 묘곽 간에 위계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수평적인 관계를 가진 묘곽이라는 점이다. 축조 기간은 50년 내외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묘곽의 수가 많은 경우 100년 내외로 축조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매장이 필요할 때 생전에 관련이 있었던 사람과 함께 같은 분묘에 묻어주기 위해 묘곽을 후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형은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자 부부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 이상의 세대에 걸쳐 2그룹 이상 함께 분묘를 형성한 것으로 보여 상위 위계에 속하는 직계자손 관계의 다곽식 고분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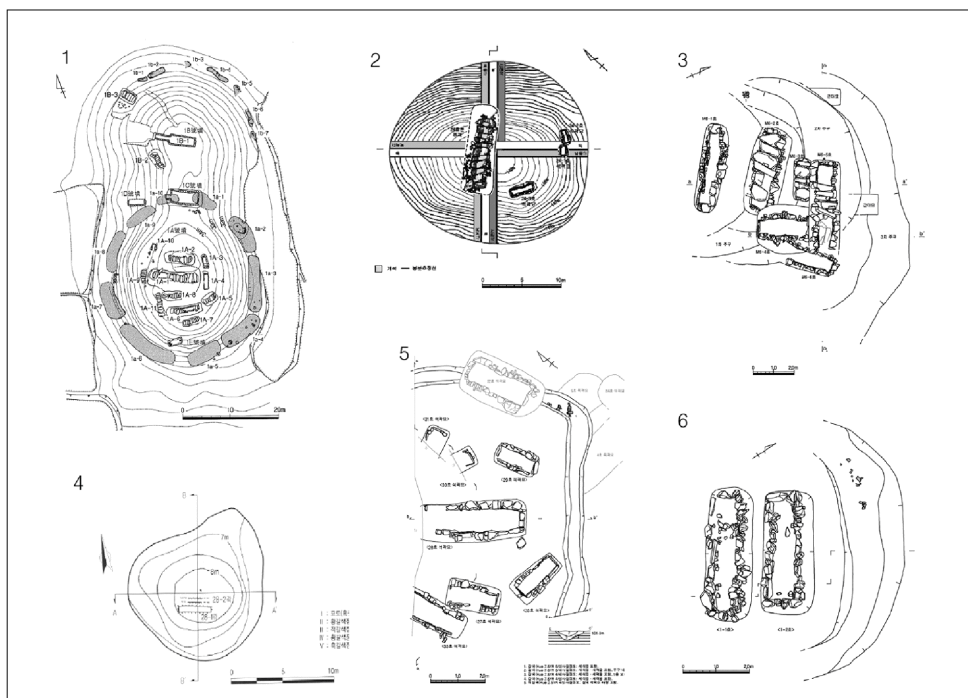
IId 유형은 2·3등급의 남성 1명과 3·4·5등급의 성별 미상 2명 이상이 함께 매장되어 비슷한 크기의 묘곽이 병렬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배치를 살펴보면 비슷한 크기의 묘곽 두 개가 봉분 중앙에 나란히 배치되며, 후축되는 묘곽이 조금 더 분묘 외곽에 설치되고 있다. 구성원의 등급의 차이는 나지만 묘곽의 크기는 거의 차이 나지

[표 4] 분묘 유형 분류표

연번	봉분명	분묘 유형	연번	봉분명	분묘 유형	연번	봉분명	분묘 유형	연번	봉분명	분묘 유형
1	송학1A	I a	42	내산Ⅲ 44	Ⅱ c	83	삼가3-26	Ⅲ d	124	명동1-71	Ⅳ d
2	내산Ⅰ 21	I a	43	내산Ⅰ 1	Ⅱ c	84	내산Ⅱ 36	Ⅳ d	125	명동1-7	Ⅳ d
3	삼가1-M5	I a	44	오천38	Ⅱ c	85	천곡2-38	Ⅳ d	126	명동1-69	Ⅳ d
4	내산Ⅱ 34	I a	45	삼가1-29	Ⅱ c	86	천곡1-4	Ⅳ d	128	명동1-61	Ⅳ d
5	삼가2-M2	I a	46	삼가2-M8	Ⅲ c	87	오천45	Ⅳ d	129	명동1-5	Ⅳ d
6	삼가1-M3	I a	47	삼가D8	Ⅲ c	88	오천34	Ⅳ d	130	명동1-48	Ⅳ d
7	내산Ⅲ 46	I a	48	삼가2-M16	Ⅲ c	89	오천24	Ⅳ d	131	명동1-45	Ⅳ d
8	가좌회망1	I a	49	삼가1-M1	Ⅲ c	90	오천23	Ⅳ d	132	명동1-24	Ⅳ d
9	삼가D69	I b	50	삼가1-23	Ⅲ c	91	오천14	Ⅳ d	133	내산Ⅰ 62	Ⅳ d
10	생초M12·M13	I b	51	삼가2-M14	Ⅲ c	92	신용Ⅱ 8	Ⅳ d	134	경산8·9	Ⅳ d
11	삼가G24	I b	52	삼가1-M6	Ⅲ c	93	생초M48	Ⅳ d	135	경산46·48	Ⅳ d
12	삼가2-M4	Ⅱ c	53	내산Ⅰ 28	Ⅲ d	94	명동2-8	Ⅳ d	136	가좌1-36	Ⅳ d
13	삼가1-M7	Ⅱ c	54	천곡2-35	Ⅲ d	95	명동1-52	Ⅳ d	137	팔천8	Ⅳ d
14	삼가D3	Ⅱ c	55	안계1·2·3	Ⅲ d	96	명동1-25	Ⅳ d	138	천곡2-39	Ⅳ d
15	삼가1-M10	Ⅱ c	56	천곡1-19	Ⅲ d	97	명동1-20	Ⅳ d	139	천곡2-25	Ⅳ d
16	삼가2-M7	Ⅱ c	57	오천39	Ⅲ d	98	명동1-1	Ⅳ d	140	신용Ⅰ 4	Ⅳ d
17	삼가2-M17	Ⅱ c	58	오천19	Ⅲ d	99	경산19·20	Ⅳ d	141	생초M73	Ⅳ d
18	생초M22	Ⅱ c	59	오천12	Ⅲ d	100	가좌3-2	Ⅳ d	142	생초M4	Ⅳ d
19	삼가D9	Ⅱ c	60	신용Ⅱ 9	Ⅲ d	101	가좌2-6	Ⅳ d	143	삼가2-M9	Ⅳ d
20	삼가1-M8	Ⅱ c	61	생초M75	Ⅲ d	102	가좌2-4	Ⅳ d	144	삼가2-M12	Ⅳ d
21	삼가D1	Ⅱ c	62	생초M68	Ⅲ d	103	천곡2-40	Ⅳ d	145	삼가1-M4	Ⅳ d
22	삼가4-M13	Ⅱ c	63	생초M36	Ⅲ d	104	천곡2-34	Ⅳ d	146	명동3-29,30	Ⅳ d
23	삼가1-36	Ⅱ c	64	삼가D70	Ⅲ d	105	오천6	Ⅳ d	147	명동1-77	Ⅳ d
24	내산Ⅰ 8	Ⅱ c	65	경산30·31·32	Ⅲ d	106	오천46	Ⅳ d	148	명동1-55	Ⅳ d
25	삼가2-M6	Ⅱ c	66	가좌1-37	Ⅲ d	107	오천29	Ⅳ d	149	명동1-13	Ⅳ d
26	삼가2-M5	Ⅱ c	67	가좌1-11	Ⅲ d	108	오천28	Ⅳ d	150	명동1-12	Ⅳ d
27	울대2	Ⅱ c	68	천곡1-10	Ⅲ d	109	오천13	Ⅳ d	151	남평10	Ⅳ d
28	삼가2-M3	Ⅱ c	69	오천43	Ⅲ d	110	오천1	Ⅳ d	152	경산4·5	Ⅳ d
29	삼가1-48	Ⅱ c	70	오천35	Ⅲ d	111	안계7·8	Ⅳ d	153	경산33·34	Ⅳ d
30	삼가1-3	Ⅱ c	71	오천33	Ⅲ d	112	안계4·5	Ⅳ d	154	가좌3-1	Ⅳ d
31	내산Ⅰ 63	Ⅱ c	72	오천32	Ⅲ d	113	신용Ⅱ 2	Ⅳ d	155	가좌1-6	Ⅳ d
32	소오1	Ⅱ c	73	오천25	Ⅲ d	114	생초M72	Ⅳ d	156	가좌1-25	Ⅳ d
33	삼가2-M15	Ⅱ c	74	오천10	Ⅲ d	115	삼가D6	Ⅳ d	157	가좌1-17	Ⅳ d
34	삼가1-M2	Ⅱ c	75	신용Ⅰ 6·7	Ⅲ d	116	명동3-35	Ⅳ d	158	가좌1-16	Ⅳ d
35	신용Ⅰ 5	Ⅱ c	76	경산41·42	Ⅲ d	117	명동3-33	Ⅳ d	159	가좌1-13	Ⅳ d
36	신용Ⅰ 4	Ⅱ c	77	경산38·39	Ⅲ d	118	명동3-32	Ⅳ d	160	가좌1-1	Ⅳ d
37	삼가D2	Ⅱ c	78	경산35·36	Ⅲ d	119	명동3-14	Ⅳ d	161	오천8	Ⅳ d
38	삼가2-M18	Ⅱ c	79	경산10·11·12	Ⅲ d	120	명동2-9	Ⅳ d	162	오천4	Ⅳ d
39	삼가2-M10	Ⅱ c	80	가좌1-8	Ⅲ d	121	명동2-10	Ⅳ d	163	오천37	Ⅳ d
40	삼가1-M9	Ⅱ c	81	가좌1-7	Ⅲ d	122	명동1-88	Ⅳ d	164	신용Ⅱ 10	Ⅳ d
41	명동1-78	Ⅱ c	82	오천9	Ⅲ d	123	명동1-72	Ⅳ d	165	신용Ⅰ 10	Ⅳ d

는 않는다. 2등급 남성 1명과 3·4·5등급의 성별 미상이 함께 부장된 것은 2등급 남성 중심의 분묘로 생전에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함께 매장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하위자일 가능성도 있지만, 묘곽의 크기와 부장품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점을 통해 부부관계를 나타내고자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축조 기간은 한 분기 내로 축조가 이루어져 연령대가 비슷한 피장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III d 유형은 중상위자 부부관계의 다곽식 고분으로 보여진다.

III c 유형은 2·3등급 남성 2명과 2·3등급의 여성 2명 혹은 4·5등급의 성별 미상 2명이 확장 병렬형이거나 복합형의 배치 형태를 보여준다. 중심 묘곽이 정해져있지 않고 비슷한 크기의 묘곽이 사망의 순서에 따라 구릉의 하단부부터 상단부로 축조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봉분 내 중심 위치의 묘곽이 선축되는 경우에는 복합형 배치가 대부분이다. 구성원은 2등급 남성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 있는 피장자들이 함께 매장된 것으로 보인다. 부부관계를 가진 사람들 2그룹 이상이 함께 매장된 것으로 추측되나 위계가 낮은 분묘로 성별을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 거의 부장되지 않고 있다. 축조 기간은 50년 내외로 장기간 축조되어 후손 관계의 추가 피장자들이 함께 매장



[도면 12] I a 유형, I b 유형, II c 유형, III d 유형, III c 유형, IV d 유형 분묘 유형

(1: 송학1A, 2: 삼가G-24, 3: 삼가2-M6, 4: 내산 I-28, 5: 삼가3-26, 6: 오천1)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Ⅲc유형은 한 세대 이후의 하위자가 포함된 다곽식 고분으로 생각된다.

Ⅳd유형은 3·4·5등급 남성 1명과 3·4·5등급 여성 혹은 성별 미상이 1명이 비슷한 크기의 묘곽으로 병렬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초축 묘곽이 구릉의 하단부, 후축 묘곽이 구릉의 상단부에 병렬 배치된 후 주구가 설치된다. 이때 초축과 후축에 따른 성별은 관련이 없어 보이며, 성별에 따른 배치보다는 사망 순서에 따라 분묘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축조 기간은 한 분기 내에 축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성별을 가진 것으로 추측되는 묘곽 2기 이상이 등급과 묘곽의 크기가 유사하며 한 분기 내에 축조를 마쳤다는 점에서 부부관계로 생각된다. 즉, Ⅳd유형은 하위자 부부관계의 다곽식 고분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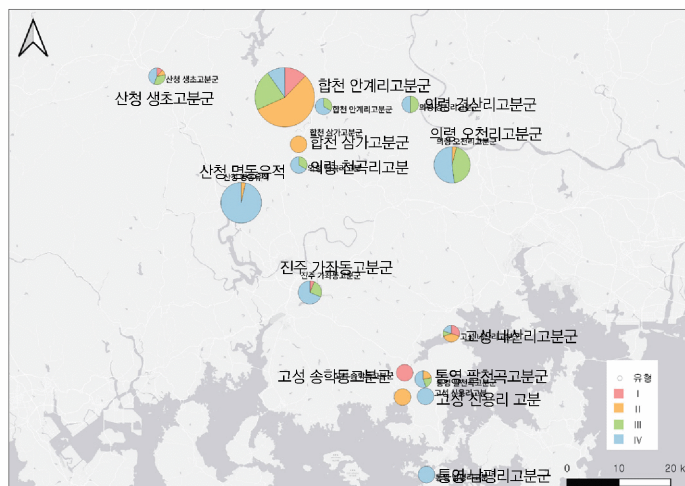
Ⅳ. 소가야 다곽식 고분군의 전개 양상

1. 소가야 다곽식 고분군의 특성

합천 삼가고분군은 41기의 다곽식 고분 가운데 Ⅱc유형 23기, Ⅲc유형 7기, Ⅳd유형 4기, Ⅰa유형 3기, Ⅲd 2기, Ⅰb유형 2기를 포함한다. 상위자와 함께 후손 관계에 속하는 피장자가 포함된 다곽식 고분인 Ⅱc유형을 중심으로 축조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한 세대 뒤의 하위자를 포함하는 다곽식 고분 Ⅲc유형의 축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합천 삼가고분군의 다곽식 고분은 직계자손, 혹은 한 세대 뒤에 속하는 후손의 묘곽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2기만 발견되는 상위자 부부관계로 추정되는 Ⅰb유형은 고분군 내 구릉 정선부에 위치하며 1등급이 포함된 분묘는 고분군 내에서도 위치를 달리했음을 알 수 있다. Ⅲc유형은 합천 삼가고분군에서만 발견되는 유형으로 합천 삼가고분군에서는 다곽식 고분을 통해 후손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합천 삼가고분군은 소가야 지역 내에서도 다곽식 고분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분군으로 유일하게 모든 유형이 분포하고 있다.

산청 명동 유적은 28기의 분묘 중 Ⅳd유형 27기, Ⅱc유형 1기이다. 산청 명동 유적의 대부분 분묘는 Ⅳd유형으로 하위자 부부관계의 다곽식 고분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의령 오천리고분군은 25개의 분묘 중 Ⅱc유형 1기, Ⅲd유형 11기, IVd유형 13기이다. Ⅲd유형과 IVd유형을 합치면 전체 분묘 수에서 한 기를 제외하고는 부부무덤을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의령 경산리고분군은



[도면 13] 다곽식 고분 유형 분포도

10기의 분묘 중에서 Ⅲd유형 5기, IVd유형 5기이다. 의령 천곡리고분군은 9기의 분묘 중에서 Ⅲd유형 3기, IVd유형 6기이다. 합천 안계리고분군은 IVd유형 2기, Ⅲd유형 1기이다. 의령 경산리 고분군과 의령 천곡리 고분군, 합천 안계리고분군 역시 부부관계의 다곽식 고분을 채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진주 가좌동고분군은 16기의 분묘 중 IVd유형 11기, Ⅲd유형 4기, I a유형 1기이다. I a유형 1기를 제외하고는 IVd유형, Ⅲd유형 모두 부부관계로 추정되는 다곽식 고분이다. 또한 I a유형은 진주 가좌동고분군 내에서도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고분군의 리더만이 진주 가좌동고분군에서 최상위자 중심의 다곽식 고분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고성 내산리고분군은 총 10기의 분묘 중 Ⅱc유형 4기, I a유형 3기, IVd유형 3기, Ⅲd유형 2기이다. 산청 생초고분군은 9기의 분묘 중에서 IVd유형 4기, Ⅲd유형 3기, I b유형과 Ⅱc유형 1기이다. 고성 신용리고분군은 9기의 분묘 중에서 IVd유형 5기, Ⅱc유형과 Ⅲd유형 2기이다. 합천 안계리고분군은 IVd유형 2기, Ⅲd유형 1기이다. 이 고분군들은 다곽식 고분이 많지 않아 유형 분포에 특징적인 점은 찾기 어려웠다.

고성 송학동고분군은 1기가 다곽식 고분으로 축조되어 있는데 I a유형에 속한다. 고성 송학동고분군은 소가야 내에서도 최상위의 위계에 해당하는 고분군으로 송학동 1A호분이 다곽식을 채택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1기의 고분이 다곽식 고분으로 축조된 합천 소오리고분군, 통영 팔천곡고분군, 통영 남평리고분군은 IVd유형, 고성 울대리 고분군은 Ⅱc유형이다. 이 고분들은 적극적인

으로 다곽식 고분의 묘제 형식을 채택했다기보다는 주변 고분의 영향을 받아 다곽식 고분을 일정 시기에 축조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다곽식 고분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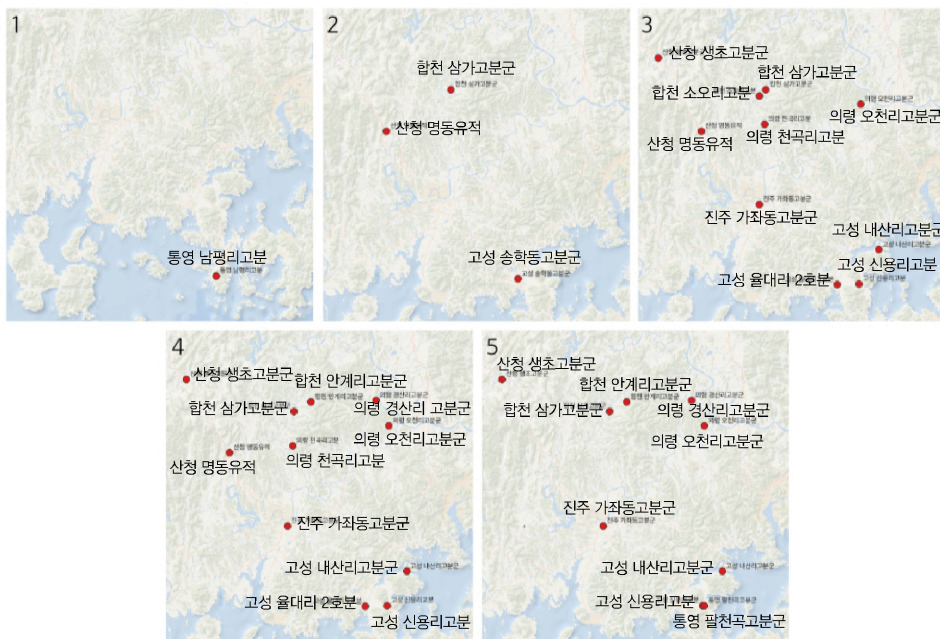
시기별 다곽식 고분을 살펴보자면(도면 14) 앞선 편년에 따라 설정된 5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1기는 통영 남평리고분군에서 처음 다곽식 고분이 출현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다곽식 고분의 주요 묘제로 사용되는 석곽묘가 아닌 그 이전 시기의 묘제로 많이 쓰인 목곽묘가 다곽식 고분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다. 또한, 처음 다곽식 고분의 출현은 하위의 묘제에서부터 사용된다. 초창기의 다곽식 고분은 상위 계층의 위계성을 드러내기 위한 묘제라기보다 중하위 계층의 피장자들 간의 관계성을 나타내고자 출발한 묘제로 보인다.

상위 계층의 위계성을 드러내고자 한 묘제로는 대가야의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같은 순장을 통해 매장이 행해지는 동시기에 여러 사람을 매장하며 동시성을 전제한 과시적인 매장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소가야 지역의 다곽식 고분은 한 봉토에 묘곽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덧붙이는 중첩성이 전제된다.

2기는 합천 삼가고분군을 중심으로 다곽식 고분이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합천 삼가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 산청 명동 유적에서 다곽식 고분이 축조된다. 이 시기는 가야권역 내 토기의 지역양식이 성립되기 시작하며, 석곽묘의 축조가 성행하게 되며 고대한 봉분을 조성할 수 있는 단계이다. 이때부터는 고분군마다 상이한 형식의 다곽식 고분이 축조되어 고분군의 특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한마디로 다양한 형식의 다곽식 고분이 출현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소가야권역 내에서는 단곽식 구조에서 다곽식 구조로 묘제의 전환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단곽식의 축조도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한 고분군 내에서 단곽식의 축조가 다곽식으로 전환되는 양상이 확인되기도 한다.

다곽식 고분으로의 전환은 다인장을 통해 고분을 고대하게 조성하기 위함과 동시에 피장자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은 다곽식 고분이 축조된 합천 삼가고분군의 경우 선축 묘곽의 조성 이후 그 다음 묘곽은 선축곽의 상단부에 조성함으로써 봉분을 고대하게 보이도록 했다.



[도면 14] 다곽식 고분의 시기별 분포(1: 1기, 2: 2기, 3: 3기, 4: 4기, 5: 5기)

3기는 본격적으로 다곽식 고분의 축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2기에 축조가 시작된 고분군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도 다곽식 고분의 축조가 이뤄지기 시작한다. 합천 삼가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 주변 지역의 다곽식 고분의 축조가 확산되어 성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합천 소오리고분군, 의령 오천리고분군, 의령 천곡리고분군, 고성 신용리고분군, 고성 울대리고분군, 산청 명동 유적, 산청 생초고분군, 진주 가좌동고분군에서도 다곽식 고분의 축조가 시작된다. 이 시기에 형성되는 고분군은 합천 삼가고분군을 제외하고 다곽식 고분의 유형 중 부부무덤으로 추정되는 Ⅲd유형과 Ⅳd유형이 가장 많은 축조를 이루고 있다.

4기는 모든 시기 중 다곽식 고분의 축조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시기이다. 앞선 시기에 축조되었던 합천 삼가고분군, 의령 오천리고분군, 의령 천곡리고분군, 고성 신용리고분군, 산청 명동 유적, 산청 생초고분군, 진주 가좌동고분군에서도 축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추가적으로 합천 안계리고분군, 의령 경산리고분군, 고성 내산리고분군, 고성 울대리고분군에서도 다곽식 고분의 축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4기는 모든 유형의 다곽식 고분이 축조되는 시기로 고분의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한 매장시설의 관념이 확산되어 모든 소가야 고분군에서 다곽식을 채용한 것으로 보

인다. 다곽식 고분의 채택은 집단 내부적으로는 같이 매장된 사람들의 관계성을 나타내고자, 집단 외부적으로는 같은 묘제 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집단 간의 관계성을 드러내고자한 것으로 추측된다.

5기에는 다곽식 고분의 축조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가야의 정치가 격변하는 시기이다. 합천 삼가고분군, 합천 안계리고분군, 의령 오천리고분군, 의령 정산리고분군, 산청 내산리고분군, 고성 신용리고분군, 산청 생초고분군, 진주 가좌동고분군이 앞선 시기에 이뤄진 축조를 뒤이어 일부 추가 축조가 이뤄진다. 그러나 이 시기에 새로운 다곽식 고분의 조성은 극히 드물어지며, 통영 팔천곡고분군 1개소만이 새롭게 축조된다. 이를 통해 5기를 기점으로 다곽식 고분의 축조가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묘제의 변화로만 볼 수 없고, 대가야 서진과 562년 신라에 의한 가야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가야의 연맹의 정치적 중심이었던 대가야가 가야 남부지역으로 세력을 확산하면서 다곽식 고분의 축조가 서서히 쇠퇴하고 가야 소멸과 함께 가야 제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다곽식 고분 역시 사라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이전 석곽묘를 중심으로 이뤄진 묘제의 구성이 전환되는 시기로 석실묘가 도입된다. 석실묘의 축조는 다곽식 고분의 추가장의 관념이 묘제의 전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합천 삼가고분군에서는 일부 석실묘가 다곽식 고분의 묘제로 채택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다곽식 고분에는 석곽이라는 매장시설이 주로 채용되어왔다. 이 시기에는 석곽묘를 중심으로 한 다곽식 고분이 축조되는 가운데 석실을 매장시설로 채용된 고분이 등장하였다는 것이 큰 변화로 이해된다. 다곽식 고분은 한 묘역을 공유하는 묘제들을 바탕으로 추가장을 이루고 있었다면 석실로의 전환은 매장시설 자체가 추가장을 위한 묘제이기 때문에 매장의례의 관념에 중대한 변화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V. 맺음말

그간 소가야 다곽식 고분의 연구는 배치를 통한 형식 분류와 변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왔다. 배치나 형식을 통한 분류는 피장자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

여 다곽식 고분은 막연히 가족묘나 근친묘로 생각되어 왔다. 다곽식 고분은 여러 묘곽이 모여 하나의 묘역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다곽식 고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묘곽을 분류하고 이러한 묘곽이 어떤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피장자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묘곽 분류를 통해 다곽식 고분의 피장자들, 혹은 그 조합을 통한 분류를 해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묘곽의 정체성 분류와 묘곽에 따른 분묘 유형을 먼저 설정하였다. 정체성이란 피장자가 생전에 생득적·후천적으로 얻게 된 개인적인 특성이며, 계층, 성, 연령, 직업 등 다양한 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 무덤의 부장품을 통해 피장자의 정체성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어떤 속성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 신중히 검토했다. 부장품은 무덤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피장자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표상하고 그의 사회적 활동을 기억하기 위해 선택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토기, 철기, 금공품 등 부장품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위, 직업, 성별에 따라 분류하고 피장자의 정체성에 접근하려 했다.

다음으로 피장자의 정체성에 따라 분류된 묘곽이 하나의 다곽식 고분에서 어떤 조합과 배치로 축조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한 묘역 내에 배치된 묘곽의 특성과 배치 구조를 통해 개별 고분의 매장례를 유형화해 보고자 하였다. 개별 묘곽은 피장자의 정체성을 함의하고 있고, 이러한 묘곽이 어떤 관계를 맺으며 한 분묘 내에 매장되었는지 살펴본 것이다.

묘곽 조합과 묘곽 배치를 중심으로 다곽식 고분의 유형을 6가지로 분류했다. 6가지의 유형은 묘곽 조합, 묘곽 배치, 축조 기간, 축조 순서 등의 속성을 달리하며 유형별 각기 다른 매장례를 행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상위자 중심, 최상위자 부부관계, 상위자의 후손 관계, 중상위자 부부관계, 하위자 후손관계, 하위자 부부관계로 추정되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은 시기별로 분포 양상이 변화했던 것이 아니라 고분군 별로 그 분포양상이 상이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었다. 합천 삼가고분군은 후손관계, 의령·진주·산청에 위치한 고분군은 부부관계, 고성 송학동고분군은 최상위자 중심의 다곽식 구성을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 본고는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류승혜 2024)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투고일 2024. 12. 31 | 심사완료일 2025. 5. 25 | 게재확정일 2025. 5. 28

참고문헌

- 김규운, 2009, 「고고자료로 본 5~6세기 소가야의 변천」,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범, 2016, 「철기의 조합양상을 통해 본 지역집단과 구성원」, 『한국고고학회』 101, 한국고고학회.
- 김선주, 2010, 「출토유물을 통해서 본 피장자의 성별의식」, 『신라의 고분 문화와 여성』, 한국학자료원.
- 김성태, 2016, 「황남대총 북분 피장자의 성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중앙고고연구』 20, 중앙문화재연구원.
- 김용성, 2014, 「고분으로 본 신라의 장송의례와 그 변혁」, 『중앙고고연구』 15, 중앙문화재연구원.
- 김은경, 2020, 「적석목곽묘 두상부 부장군 부장 용기와 그 의미」, 『한국고고학보』 116, 한국고고학회.
- _____, 2022, 「신라 마립간기 장송의례의 다양성과 재편과정」, 『한국고고학보』 124, 한국고고학회.
- 김지연, 2013, 「소가야양식 토기의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일, 2024, 「몸, 기억 그리고 정체성: 분묘고고학의 새로운 전망」,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33, 영남고고학회.
- 류승혜, 2024, 「소가야 다곽식 고분의 매장의례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승규, 2000, 「고고학을 통해 본 소가야」, 『고고학을 통해 본 가야』, 한국고고학회.
- _____, 2010, 「가야토기 양식의 확산과 계층성」, 『고고학에서의 중심과 주변』, 제29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 박지민, 2023, 「부장천기로 본 울산지역 중소형고분군 축조집단과 사회구조」, 『영남고고학』 95, 영남고고학회.
- 박진옥, 1964, 「신라 무덤의 편년에 대하여」, 『고고민속』 4.
- 서현주, 2020, 「백제 사비기 호서지역 고분과 매장의례」, 『선사와 고대』 64, 한국고고학회.
- 안기동, 2023, 「합천 삼가식 다곽분 연구」, 『한국고고학회 학술대회』, 한국고고학회.
- 여창현, 2013, 「소가야연맹체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7, 「묘제를 통해 본 5~6세기 소가야연맹체 연구」, 『영남고고학』 78, 영남고고학회.
- 윤세영, 1974, 「古新羅·伽倻古墳의 編年에 關하여」, 『백산학보』 17, 백산학회.
- 이성주, 1996, 「신라식 목곽묘의 전개와 의의」, 『한국고고학전국대회』 20, 한국고고학회.
- 이희준, 2011, 「한반도 남부 청동기~원삼국시대 수장의 권력 기반과 그 변천」, 『영남고고학』 58, 영남고고학회.
- 정인태, 2020, 「고분 축조기법과 매장의례를 통해 본 소가야권 고분군 축조집단의 성격 - 대형 봉토분과 분구묘를 중심으로 -」, 『문물연구』 38, 동아시아문물연구소.
- 최영준, 2017, 「가야 다곽식 고분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대룡, 2016, 「고총단계 신라 고분의 부장 정형과 그 함의」, 『한국고고학보』 101, 한국고고학회.
- _____, 2019,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 재고」, 『한국고고학보』 111, 한국고고학회.
- _____, 2023, 「신라 고분의 젠더 분석 시론」, 『고고학』 22, 중부고고학회.
- 하승철, 2001, 「가야서남부지역 출토 도절토기에 대한 일고찰」,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5, 「소가야의 고고학적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 _____, 2021, 「합천 삼가고분군의 다곽식 고분과 가야권역 다곽식 고분의 비교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61, 동아시아고대학회.
- Chris Fowler, 2004, 『The Archaeology of Personhood』, Routledge.
- Thomas, J. 1996, 『Time, Culture & Ident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Sogaya Multi-Chamber Tombs

Yoo, Seung-Hye(Researcher, Silla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Research on the multiple-chamber tombs of the Sogaya region has primarily focused on the classification of tomb forms and their evolution based on burial arrangements. However, such classifications, centered on arrangement or form, do not reflect the identities of the interred, leading to the assumption that these tombs were family or kinship graves. Multiple-chamber tombs consist of several burial pits that share a common burial space, necessitating a classification of each burial pit and an understanding of their compositional combinations. This study aims to categorize burial pits based on the identities of the interred to attempt a classification and typology of the tombs. In the Southern Gaya society, the practice of multiple-chamber tombs, in which several burial pits are arranged within a single mound, was widespread. Although the tombs of each regional group were constructed based on a common burial concept, they show diverse combinations of interred individuals, reflecting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This paper explores how the burial arrangements and their combinations reveal social and cultural identity through the lens of gender, kinship, and other factors.

Key words : Sogaya, multiple-chamber tombs, burial system, burial practice, identity, gender